

## 107. 자동차 트림라인 작업자에서 발생한 제3-4요추간 수핵탈출증

**성별** 남 **나이** 42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서OO는 OO자동차에 1991년 6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의장부 트림라인에서 작업하여 오던 중 2006년 2월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의 트림라인 작업공정은 약 30개 정도이고 대략적으로 트렁크리드 토션바 장착, CD케이블 장착, 휴얼휠러도어 케이블장착, ABS O번 튜브 고정, ABS 유니트 고정(O번 튜브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로자는 2시간 기준으로 작업순환을 실시하며, 주로 하루에 10시간 작업을 하였다. 근로자 서OO의 의장부 트림라인의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action level 3, 4로 위험수준이 높으며, 또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를 취하며 수행하는 작업 비율과 작업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허리에 부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의학적 소견:** 1991년 6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의장부 트림라인에서 작업하여 오던 중 1998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파스, 약물복용(약국), 침치료(한의원) 외에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 2005년 11월부터 방사 통증(요통, 좌측 둔부 동통)과 더불어 좌하지 이상 감각 및 무감각 등 증상이 심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후 2006년 4월에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다.

**4.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서OO는,

- ① 요추 제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 ② 의장부 트림라인의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action level 3, 4로 위험수준이 높으며, 또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를 취하며 수행하는 작업시간이 많으며,
- ③ 이러한 허리의 구부리기, 비틀기 또는 불완전한 자세와 요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은 관련성이 크며,
- ④ 그리고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 다른 질병이나 요인이 없으므로

근로자 서OO의 작업공정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및 산업의학적 분석에서 요추 제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